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검토중인 법제위원회의 모습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 법제위원회 개최

공중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예고됨에 따라 이를 검토키 위한 법제위원회가 지난달 16일 협회사무국에서 열렸다.

그동안 전기통신관련법령 정비 방향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업계는 이번 개정이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으나 정보통신산업을 지원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개선된 것으로 판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보통신역무 제공자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역무제공자에게 타인통신 매개를 허용함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역무를 체신부장관고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정보통신회선사용의 종류나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의 허가 등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제되는지의 여부와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어온 체신부장관의 명령·조령권이 민간사업자에게 확대 해석됨에 이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한편 당협회의 법제위원회가 업계에서 조사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7월 공동작업 후 체신부에 건의한 「전기통신 관련법령 정비에 따른 업계 의견서」가 이 개정시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앞으로 시행령 제정시에도 관계당국과 업계 및 당협회의 긴밀한 유

대가 예상되며, 개정안이 국회 통과후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사이 경과 조치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요망하고 있다.

JICOA와 교류 추진 방문

당협회의 국제협력위원회가 지난달 11일 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려 일본정보통신진흥협회(JICOA) 방문에 대해 일정, 방문단 구성 등 구체적인 토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 송형석 간사의 5명이 참가, 방문일정을 이달말에서 10월초 사이로 잡았는데 방문시 당협회의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실무협약의 협력분야 및 방안에 대해 상호의견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사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회원사는 필요한 자료명을 이달 25일까지 협회사무국으로 공문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

제2차 통신기본교육 실시

지난 7월 실시된 통신기본교육이 교육생들로 부터의 긍정적 반응과 관련사들의 높은 관심도에 따라 제2차 통신기본교육을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의 2차 교육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회는 1차 교육의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는 등 위탁기관인 정보문화센터와 교육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